

진관사, 국행수륙재

13~14일... '국민평안' 기원

북한산 진관사(주지 계호)가 조선시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수륙대제 시연회를 개최했다.

진관사와 사단법인 진관사수륙재보존회는 10월13-14일 경내에서 '국행수륙대제'를 봉행했다.

국행수륙대제는 조선시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봉행된 행사를 계승한 것으로 낮제와 밤제 2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낮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자리이며, 밤제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정하여 공양을 올리고 모든 영가에게 시식을 베푸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국행수륙대제는 13일 오전 10시30분 영가를 맞이하는 시연 의식을 시작으로 대령, 관육,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 법문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14일에는 수륙연기와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 봉송회향 순으로 봉행된다.

진관사는 "21세기는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며 앞으로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우리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에 힘쓰고, 향후 지역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봉행"

민추본-조불련 10월 13일 개성서

남북불교교류 활성화와 민족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합동 법회가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는 10월 13일 오후 2시 '금강산 신계사 복원 5주년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이하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남북합동법회는 지난 10월 5일 조계종 민추본과 조불련이 개성에서 가진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민추본은 "올해 들어 남북을 통한 남북공동행사로써는 처음 갖는 행사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북불교도의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굳건한 신뢰관계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조계종 민추본은 10월 11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5주년을 기념하는 '금강산 신계사 발굴조사보고서(3차~6차)'를 불교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또한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혜숙 기자

종교차별 75% 학교서 발생

배재정 의원, 7일 문광부 국정감사서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중 종교차별로 판정된 민원의 75%는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배재정(민주당) 의원이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2008년 10월 설치된 이후 신고된 건수는 15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9건, 2009년 59건, 2010년 39건, 2011년 17건,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8건이었다.

이중 처리결과를 보면, 종교차별에 해당되어 시정요지를 받은 건수는 12건이었고, 차별은 아니지만, 개선 검토 및 권고를 받은 경우는 68건이었다.

종교차별에 해당되어 시정요지를 받은 건수 12건 중 75%인 9건은 모두 학교에서 일어났다. 개선 검토 및 권고를 받은 민원 68건 중 26.5%인 18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2011년 12월 광주광역시 00고등학교 영어교사는 학생들에게 00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지상과 시사다큐멘터리를 청취시켜 종교차별로 판정됐다.

2011년 3월 서울시 모 중학교 수학교사는 수업시간 중 아이들에게 기도하기를 강요하며 학생들에게 교회 관련 영상물과 찬송가를 들려줘 시정요지 요구를 받았다.

직원 채용 임용지원서에서 종교 기재로 인해 종교차별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사



배재정 의원



전병헌 의원

시정 조치도 학교 비율 높아

금강산관광 중단 손실 지적도

2조원 피해... 조속히 재개해야

례도 있었다. 서울시 00청소년 수련관장은 서울시립 00청소년 수련관의 '2012년 방과후 아카데미 직원 채용' 시 직원 임용지원서에 종교를 기재토록 해 종교차별로 시정요지를 받았다.

배재정 의원은 "헌법 20조 1항에 대한 한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특정 종교를 폄하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직원 채용에서 종교를 고려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문화위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10월 11일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조치로 피해규모가 2조 284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현대아산이 시설투자자로서 들어간 돈이 7천690억원, 매출손실이 6천 297억원 등 총 1조 3,988억원으로 나타났고, 민간협력업체 피해액은 3,318억원, 강원도 고성군 1,421억원 등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단 때문에 관내 관광객이 2007년 62만 명에서 2011년 483만 명으로 급감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직자들의 전출로 인해 인구가 10년 만에 8.1% 줄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또한 자산동결 900억원, 매출손실 106억원 외에도 금강산 개발 과정에서 차입한 남북협력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금액만 224억원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 여행자들이 항공, 육로, 해상을 이용한 북한 관광 상품 개발 >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 > '한반도 경제협력 기반의 약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교계와 시민단체, 기업, 지자체 등은 지난 9월 5일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한 운동본부 발족했으며, 상임 대표로 조계종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추대한 바 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국화축제를 앞두고 서울 중로 조계사가 사찰을 단장하고 있다.

가을 산사, 문화로 물들다

조계사 등 전국사찰 10월 문화축제 잇달아

전국 사찰들이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지역과 연계한 축제 등 풍성한 문화행사를 펼친다. 사찰 문화행사는 매년 업그레이드되면서 콘서트, 연극, 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11월 10일까지 전남 함평군과 제2회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를 경내에서 개최한다.

개막식이 열리는 17일 오후 6시에 유진 박, 손리, 김수희 등이 출연하는 '꽃이되어요' 음악회가 열린다. 18일 오후 6시에 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극단 '빨래터' 단원들의 연극 '경로당 폰팅사건'이 공연된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가,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야운'과 '들구름' 약단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노래로 듣는 부처님 말씀 '흑백나사'"가 진행된다.

23일 오전 9시 30분에는 범향 나눔 국화영산재가 봉행되며 15-22일까지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이 팔경도를 주제로 법문한다. 또한 16-24일에는 함평군농·특산물 50여 품목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열리며, 행사기간동안 국화분재 등을 상시 판매한다.

공주 감사는 10월 27일 경내에서 영규 대사 추모제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추모제는 임진왜란 시 구국한 진위장군 기하당 영규대사와 800여 호국공신의 넋을 기리는 의식으로 오전 11시 대웅전 앞에서 봉행되며, 오후 1시부터는 '제11회 감사 산사음악회'가 진행된다. 공연에는

11월 개최 예정했던 전통불교예술제를 취소하고, 행사 준비금 600여만원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구미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사암련, '불산 피해' 성금 전달

행사준비금으로 보시

최근 불산가스 노출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구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역 사암연합회가 나섰다. 구미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범성)는 오는

계동대 여시아문 합창단, 육군군악대, 5인조 아이돌 보이즈 등이 출연한다.

한국불교대교종은 10월 18일 경기 양주 청원사 특별법회장에서 '제2회 태고문화축제'를 봉행한다. 태고보우국사 탄신 711주년 다례일을 맞아 열리는 행사에는 1부인 헌다의식을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 시연이 선보인다. 2부 희망나눔 태고문화콘서트에서는 국학국악원 풍물놀이패의 풍물공연과 초청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강원 오대산 월정사는 10월 19-21일까지 월정사에서 '생명·평화·명상 치유의 한마당' 축제를 연다. 19일에는 법고 시연, 승무를 시연하며 보살계 수계 대법회,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의식, 생명살림방생 대법회가 봉행된다. 20일에는 오대산 단풍길을 따라 걷는 '오대산 천년 숲 옛길 걷기'와 찬불가 합창제 및 금홍신곡 시흥송회가 진행된다.

양주 오봉산 석굴암은 10월 20일 오후 1시 30분 경내특실무대에서 '제5회 단풍음악제'를 개최한다. 음악제에는 인기가 수 입수정, 이상우씨와 30사단 군악대가 출연하며 국악인 리에지씨가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경주 골굴사는 10월 20일 오후 1시부터 경내에서 '제10회 화랑의 후예 골굴사 전통무예대회'를 개최한다. 태권, 기전, 선무도 등 한국전통무예 시연과 성악가 정율 스님이 출연하는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나 기자

환경·인권 등 15개 분과... 400여 실무진 구성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5대 집행부 출범

제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환경·종교평화·인권 등 15개 상설위원회와 400여 명의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50여 명은 10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예방하고 집행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신도회가 발표한 임원 및 실무진은 상임고문 10명, 고문 23명, 명예회장 1명, 지도위원 83명을 포함해 약 400여 명이다.

분과별 15개 상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기획에 하복동 前 감사위원 △정무에 이성규 前 서울경찰청장 △교육·포교에 김동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미

디아 박진열 한국일보 부회장 △봉사·나눔·복지 이두형 한국여성금융협회장 △전통문화·예체능 김태근 국립도서관장 △노동·인권·장애인 생명 전 국회의원 △환경·생태에 이인정 前 네팸대사 △남북·국제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여성·청소년 권윤방 아시아앤스프츠연맹 회장 △교구조직 변영우 대한사회회 부회장 △직능조직 우방우 대한수상스키협회장 △재정·마케팅 박준현 삼성자산운용사장 △종교평화·법률구제 최정수 김앤장 대표 변호사 △사서·대변인에 임장수 경제인불자연합회 상임부회장이 선임됐다.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 2명과 교계 유관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16명의 위원을 위

촉했다.

또한 조계사·봉은사·도선사·한마음선원 등 9개 수도권주요사찰 신도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지승 스님은 "25대 신임 집행부를 보면서 중앙신도회가 각계각층 전문분야를 띄고 한국불교 포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며 "불교포럼과 중앙신도회가 양대 산맥을 이루 불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적극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신도회는 핵심사업 추진부분 및 전략 단계별 사업목표와 비전 등을 발표했다.

한편 제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임 집행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실무대에서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현대불교신문

창간 18주년

축하합니다

주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음 선원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
www.hanmaum.org

〈국내·국외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064)727-3100 FAX: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상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 (055)345-9900 FAX: (055)346-2179
- 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6-8163 FAX: (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041)852-9100 FAX: (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 (054)555-8871 FAX: (054)556-1989
- 미국 뉴욕 플라시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460-2019 FAX: (1-718)939-3974
- 미국 워싱턴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1-703)560-5166 FAX: (1-703)560-5166
- 미국 로스앤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1-323)766-1316 FAX: (1-323)766-13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1-416)750-7943 FAX: (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 República Argentina
TEL: (54-11)4921-9286 FAX: (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투쿠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 (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2131)969551 FAX: (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 (070)8258-2391 TEL: (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 (55-11)3337-5291